

# 최상위권 독법의 실전 적용

## -2015학년도 수능 국어 B형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수학 칼럼을 열심히 준비하던 중 오랜만에 국어 칼럼으로 찾아 뵙습니다. 오늘 칼럼은 칸트와 관련된 2015학년도 수능 국어 지문의 해설인데, 제가 이전 칼럼에서 말했던 것들을 적용해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단순 해설에만 그치지 않는 건 언제나 같습니다.

## I. 들어가며

이 칼럼은 오르비 UR독존님의 독서 해설 대회에 응모하는 느낌으로 쓰는 거지만, 저는 이 지문을 풀고 나서 왜 독존님이 대회를 열었는지 조금은 알 거 같습니다.

제 첫 칼럼은 2020학년도 수능 [베이지주의의 조건화 원리] 지문을 매개로, 최상위권 수험생의 독법을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에 남긴 댓글은 이렇습니다. "2022학년도가 아닌 2020학년도 수능 지문으로 첫 글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정형화된 틀에 맞추어 글을 전개한 지문을 본 적 없기 때문이다."

이 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능 국어의 합리적인 틀에 맞게 지문의 내용이 흘러갑니다. 다만 철학 지문이다 보니 용어의 난해함, 더 나아가 문장의 난해함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헤겔 지문처럼 수험생들을 괴롭게 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최대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II. 2015학년도 수능 국어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틀에 관해서는 제 첫 칼럼 [독서 공부법(1)]을 참고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이성을 중시했던 합리론에 맞섰던 칸트

#### ★이 정도는 알아두자!

경험론의 선두 주자는 베이컨이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귀납법이 베이컨이 만든 논법입니다. 대표 저서 신기관(노름 오르가눔, 1622)을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 이상론도 인터넷에 한 번쯤 찾아볼 만합니다.

합리론의 선두 주자는 데카르트였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연역법 역시 데카르트가 만든 논법입니다. 대표 저서 방법서설(1637)을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논쟁(경험론 vs 합리론)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칸트였습니다. 칸트의 대표 저서 순수이성비판(1781)을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연도는 직업병입니다. 세계사는 못 참조.)

저는 이 책들을 모두 세 번 이상 읽었으며, 아무리 배경 지식 논쟁이 있다고 한들, 일반적인 수험생과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안 읽으면 수능 못 푸냐?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따금씩 던지고 지나가는 이야기 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문을 보겠습니다.

<p>합리론 ⇒ 이성 &gt; 감정</p>	<p>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p>
<p>세계의 이치 ←</p>	
<p>칸트 ⇒ 이성 = 감정</p>	

합리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며 시작합니다. 합리론은 이성을 중시하였고, 미적 감수성을 논외로 하였습니다. 미적 감수성을 보고 떠올릴 것은? '감정'이죠. 이성과 감정의 대립 구도는 꽤나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자신만의 말로 표현하기 + 대비되는 짝 짝을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합리론이 보기엔 미적 감수성은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정해 지는 (자의적인) 것이었고,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는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떠올릴 부분은 꽤나 많습니다. '세계의 신비', 일단 중요한 말이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의 사용에 주목 하자!) 나만의 말로 바꾸면? 세계의 이치, 더 쉽게 말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계의 이치를 아는 데 기여하는 건 이성이고, 감정은 그렇지 않다, 이게 합리론의 입장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놓치는 '달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 '감정이 기여하지 못 한다'는 잘 짚어도 '이성이 기여한다'는 못 짚습니다. 역시나 과몰입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위 내용이 합리론에 관한 설명이었고, 이제 칸트가 등장합니다. '합리론에 맞서'라고 했으니 또 대비되는 짝이 됩니다. 큰 틀을 이해하는 데 정말 유용합니다. 이성과 감정에 이어, 이번에는 합리론과 칸트라는 대비되는 짝을 짚어야 합니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했습니다. 미감적 판단력을 나만의 말로 바꾸면?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능력이죠. 저는 '적'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난해한 글을 만드는 주법이죠.

결국 칸트는 미적 감수성 역시 하나의 능력으로 보면서, 합리론과는 달리 이성과 감정이 거의 동등하다(못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취미 판단 이론이겠네요. 다음 문단에 나와야 합니다.

## (2) 취미 판단에 관하여

**취미 판단**  
= 미추 판단

쾌 - 미  
불쾌 - 추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

'취미 판단'은 미와 추, 아름답거나 추한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리 좋게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 그냥 미감적 판단이라고만 해도 난해한데, 왜 저런 말을 만들었나 모르겠네요. 아저씨 원코 분량 늘리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름답고 추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취미 판단입니다. 처음 읽었을 때 누구나 hobby decision을 떠올렸을 거 같은데, 취미에는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자는 같습니다.)  
나만의 말로 바꾸어 취미 판단 = 미추 판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든 판단'에 대해 나오네요. 과몰입했던 학생들은, 여기서 저 이야기가 취미 판단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한참 읽다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죠. 취미 판단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모든 판단이 가진 성질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관련된 '규정적 판단'은 술어 P가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이 내용이 주어 S에 대응됩니다.

'부여한다'라고 하니 머리가 어지러운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나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를 볼까요. 나 = 사람이고 '사람이다'라는 객관적 내용이 '나'와 대응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성 - 개념 - 규정적 판단 - 객관적 성질 모두 같은 맥락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전 내용을 떠올려보면, 칸트는 이성 못지 않게 감정도 중시했습니다. 미적 감수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차례인데, 둘을 거의 동등하게 보았으니 설명 역시 유사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적 감수성은 감정으로 보기로 했고 주관적일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 맥락에서, P 자리에 있는 미 or 추가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인 것 '처럼' 주어 S와 대응됩니다. 그리고 나서 뼈기를 박는 문장도 나옵니다. 취미 판단에서 술어 P는 오로지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이성 vs 감정의 일관된 지문의 흐름이 보이시나요? '대비되는 짝'을 계속 짚고, '맥락상 동의어'를 매칭시킬 줄만 알면 쉽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쾌와 불쾌 역시 미와 추에 각각 대응되는 '맥락상 동의어'들이겠죠.

한 지문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규정적 판단**  
⇒ 개별 다수 가능

**취미 판단**  
⇒ 개별 대상만

why?  
일반화 ≠ 주관

[A] 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위에 했던 설명대로, **규정적 판단**은 객관적이기에, 개별 대상이든 다수의 대상이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는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도덕과 관련된 명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이라는 말로 다수의 대상을 묶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죠.

하지만 **취미 판단**은 어떨까요. 미와 추를 판단하는 주관적인 내용인데, 다수의 대상을 묶어서 설명하는 순간, 지문의 말대로 '일반화'가 됩니다. 일반화와 주관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부정어**에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취미 판단**  
⇒ 이성 미·추만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취미 판단의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대상의 형식과 관련된 부분을 그저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대상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기반으로 미추를 판정합니다.

앞부분을 똑바로 읽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일으킨 감정이 '쾌'면 '미'로 판단할 거고, '불쾌'면 '추'로 판단할 것이다. '맥락상 동의어'를 짚으면 서 지문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제시된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시한 취미 판단의 과정에서, 그 목적은 미와 추의 판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나머지 이야기들은 모두 배제해야겠죠. 이처럼 미와 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태도를 미감적 태도라 하고, 이 태도는 취미 판단의 전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하기'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취미 판단에 관해 설명하면서, '미감적 태도'의 개념을 한 문장 안에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리로 제시한 결론은, **취미 판단에서는 지식, 유익함, 교훈 등의 다른 맥락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3) 취미 판단의 보편성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 거 같고, 대충 이야기가 끝난 거 같은데, 다음 내용을 보면 살짝은 어려운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아름답다의 정의? 존재 X

공통감이 그 역할을 대신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 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취미 판단이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적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하네요. (이전 문단에서 제시한)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위에 나왔던 그런 취미 판단을 하는 구성원들은 '공통감'이 있고 이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을 뜻하며, 모두가 이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전제로 작용한다는 말)

말도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미술관에 가서,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너무 추해서 보기가 싫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의 기준에 부합하니까!

그 이야기를 어렵게 써 놓은 것 뿐입니다. '공통감'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결국은 제가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통적인 감정들이 규범의 '역할'을 하죠. '아름답다'의 정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정 대상이 아름답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공통감'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뭔가 22 수능 헤겔 지문의 내용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규정적 판단은 객관적 보편성을 지니고, 취미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름다움에 관해 말하는 것은 모두 주관적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고 말하는 아이돌 / 배우는 있지 않나요?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건 정확히 저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이 주관의 영역이지만 보편적으로 누구나 아름답다고 말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편 -> 객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제 배경 지식을 한 번 수정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지문 vs. 배경 지식에서, 둘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지문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머리 속에 있는 미와 추에 관한 생각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공통감을 보여주는 거죠. 예시한다고 했으니 정확히는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만요.

22수능 헤겔 지문에 제시된 '완전한 주관성의 재객관화'를 떠올려 보시면 '주관적 보편성'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 걸 알게 되실 겁니다.

#### (4) 취미 판단이 갖는 의미 - 칸트의 지향점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말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나고,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칸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를 위해 취미 판단 이론을 내세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읽어 보니, 인간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는 데 이성과 감정 모두 중요하다고 하네요. 부연 설명을 덧붙여주는데, 객관적 타당성의 한계에 대해 말합니다. 결국, 한계가 있으니 주관 역시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말이 밝힐 수 없다고 하니, 이성 = 개념으로 보는 지금까지의 흐름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달리 미적 감수성(감정)은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개념에게서 자유롭다는 뜻이죠.

그 덕분에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나만의 말로 바꾸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정 모두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미적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㊸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이성과 마찬가지로 미적 감수성도 지혜인**

앞 문단의 단어와 연결해서,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지혜를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혜'로 이해했고, 이는 이성과 동등한 위상을 가정했던 (지문에서 말한) 칸트의 첫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성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건 누구나 동의한 사실이니깐요.

### III. 마치며

독존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지문과 2020학년도 수능 [베이지주의의 조건화 원리] 지문을 보시면 왜 독존님이 얻어갈 게 많다고 하셨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강조했던 독법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었으니 잘 복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리론  
=> 이성 > 감정

세계의 이치

칸트  
=> 이성 = 감정

취미 판단  
= 미추 판단

쾌 - 미  
불쾌 - 추

규정적 판단  
=> 개별 대상 상

취미 판단  
=> 개별 대상 안  
why?  
일반화 ≠ 주관

취미 판단  
=> 이성 미추만

'아름답다'의  
정의? 존재 X

공통감이  
그 역할을 대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A]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이성과 마찬가지로 미적 감수성도 지혜인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 ①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 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 이성 + 미적 감수성

28.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②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②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 간주했기
- ② ㉡: 피력한다
- ③ ㉢: 개입하지
- ④ ㉣: 소지하는
- ⑤ ㉤: 확산되어